

정독도서관의  
변화를  
위해

서울 종로구 화동에는 정독도서관이 있다. 서울의 도서관들 중에서 정독도서관은 아마도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한 도서관일 것이다. 서울의 역사를 간직한 북촌이라는 공간에 자리잡은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은 아닐까?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거나, 희귀한 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정독도서관은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좋은 도서관이다.

최근에 이곳과 관련된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복궁 복원에 이어서 광화문 일대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크게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광화문 앞의 길을 줄이고 광화문을 원래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다. 광화문 복원과 광장의 조성이다. 이렇게 되면 일제에 의해 파괴된 서울의 역사성은 크게 되살아날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역사문화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경복궁 일대의 공간을 복원하는 것이다. 소격서와 종친부가 있던 기무사 터를 복원하는 것은 그 한 예이다. 이 계획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미 대사관 직원 숙소 터를 보존하는 계획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터는 삼성이 이미 매입해서 개발하려 한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두번째 계획이 바로 정독도서관의 변화와 연관된다. 만일 삼성이 미 대사관 직원 숙소 터를 개발한다면, 안국동 네거리에서 정독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조용하고 오붓한 '돌담길'이 아니라 아마도 다소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곳을 지키고 있는 풍문여고와 덕성여고는 어떻게 될까? 정독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길의 분위기는 조만간 완전히 달라지고 말 것 같다. 그러나 정독도서관 자체는 더 좋은 곳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종친부를 원래의 자리로 옮기면, 정독도서관의 공간이 더 넓어지고, 전체 경관과 분위기도 통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종친부 건물이 정독도서관 안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종친부 건물은 원래 삼청동 기무사 터에 있던 것을 1981년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직후에 정독도서관으로 옮겼다. 종친부는 “조선시대 국왕을 지낸 분의 족보와 얼굴 모습을 그린 영정을 받들고 국왕 친척인 왕가(王家)·종실(宗室)·제군(諸君)의 계급과 벼슬을 주는 인사 문제와 이들 간의 다툼 등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처리하던 관아”였다(서울시 서울문화재 홈페이지). 지금의 종친부 건물은 원래 종친부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종친부는 경복궁의 동쪽 문인 건춘문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 문은 종신(宗臣), 외척 및 부마(駙馬)인 척신(戚臣)만 출입하는 문이었다. 종친부가 건춘문 건너편에 자리잡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서울 600년사).



홍 성 태\*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과 교수  
hongst3@sangji.ac.kr

종친부 건물은 파괴의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은 채로 대부분 파괴되고 말았다. 간신히 남은 건물마저 정독도서관의 한 귀퉁이로 옮겨지고 말았다. 그 자체가 망국의 설움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종친부 건물을 원래의 자리로 옮기겠다는 것은 식민과 독재의 역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파괴되었던 역사를 되살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부디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정독도서관 터는 종친부 건물보다 더욱 큰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본래 경기고 자리이다. 경기고는 1900년에 최초의 중학교로 출발했다. 그 건물은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 김옥균과 서재필의 집터에 지었다. 사실 이 부근은 개화파의 집결지였다. 홍영식(창덕여고에서 헌법재판소로), 서광범(덕성여고와 풍문여고 사이), 박영효(인사동 경인미술관), 서재필과 김옥균(경기고에서 정독도서관으로) 등이 모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북촌은 세도가의 동네였고, 이들은 모두 세도가의 자제들이었다. 김옥균과 서재필의 집터는 서울교육사료관과 그 부근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정독도서관과 운동장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박제순의 집터이다.

정독도서관은 1977년에 문을 열었다. 경기고는 1976년에 지금의 자리로 떠났다. 이 무렵 시내의 많은 학교들이 강남으로 떠났다. 경기고, 숙명여고, 휘문고 등이 그 예이다. 박정희 정권의 강남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명문고'의 강남 이전은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중동고, 배재고, 양정고, 창덕여고 등이 모두 떠났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양한 용도로 재개발되어 서울 도심의 경관과 분위기를 크게 바꿔 놓았다.

그런데 경기고의 이전과 관련하여 한 기사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김옥균에게는 후손이 없지만 서재필에게는 후손이 있는데, 이 후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서재필 집터 반환소송을 해서 이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강남에 훨씬 넓은 땅을 주는 방식으로 반강제적으로 이전시켰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기고 동문들은 처음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강남 개발과 함께 반발은 사라지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독도서관은 역사적 공간이다. 꼭 책을 읽기 위해 이곳을 찾을 필요는 없다. 넓은 마당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찾아도 좋고, 역사를 느끼기 위해 찾아도 좋다. 정독도서관 건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1938년에 경기고의 새로운 교사로 지어진 이 건물은 근대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물에서 일제 시대 학교 건물의 특징을 읽을 수도 있고, 나아가 일제 시대 학교의 특성 자체를 읽을 수도 있다. 권위적 외관이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독도서관은 이미 도서관이나 독서실로만 이용되고 있지 않다. 정독도서관을 '서울 시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꼽는 시민도 있거니와 이미 이곳은 휴식의 공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예컨대 봄이면 벚꽃이 아름다워 사진을 찍기에 좋으며, 또 데이트하기에도 좋다는 등의 얘기가 이미 널리 퍼져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인왕의 모습도 일품이다. 또 화도에서 가회동으로 이어지는 북촌의 경관도 어느 정도 감상할 수 있다. 이런 곳을 오직 책을 읽기 위해서만 찾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정독도서관 입구에는 커다란 회화나무가 한 그루 있다. 200살이 넘는 노거수이다. 회화나무는 기품

이 우아한 나무여서 예로부터 왕궁이나 사대부 집에 즐겨 심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곳이 원래 사대부의 집터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우아한 나무의 둘레는 전혀 우아하지 않다. 종로구의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독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흉한 모습을 보아야 한다. 아름다운 나무의 둘레를 전혀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그늘 아래 잠시 쉬어 가는 자리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2005년 4월에 정독도서관 터의 지하에 쓰레기 적환장과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근의 재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까지 옮기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어

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정독도서관과 재동초등학교 부근의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계획 때문에 정독도서관 터가 훼손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정독도서관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태적으로 북촌에서 핵심적 구실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이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오랜 노력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모든 도서관이 도서에 관한 기본기능의 충족을 넘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설이 되기를. 

## ≡ 제42회 도서관주간 행사 실시 ≡

공식 주제 : 도서관, 내가 찾은 최고의 행복입니다.(©황현경)

공식 표어 : 세상을 바꾸는 힘 도서관에 있어요.(©정병진)

꿈이 열리는 창, 도서관(©이인경)

우리 협회는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생활 진흥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 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회적으로도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 협회도 8월에 열리는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통해 우리 도서관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관주간의 공식주제는 도서관, 내가 찾은 최고의 행복입니다.(©황현경), 공식표어는 세상을 바꾸는 힘 도서관에 있어요.(©정병진), 꿈이 열리는 창, 도서관(©이인경)입니다.

홍보용 포스터(1종)와 표어(2종)는 사무국에서 제작하여 회원도서관에 배부합니다. 아울러, 회원도서관께서는 다른 분들이 귀 도서관의 행사소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URL을 사무국 홈페이지(www.korla.or.kr)주요행사)도서관주간)행사알림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담당 강원영 ☎ 02-535-4868, 전송 02-535-5616]